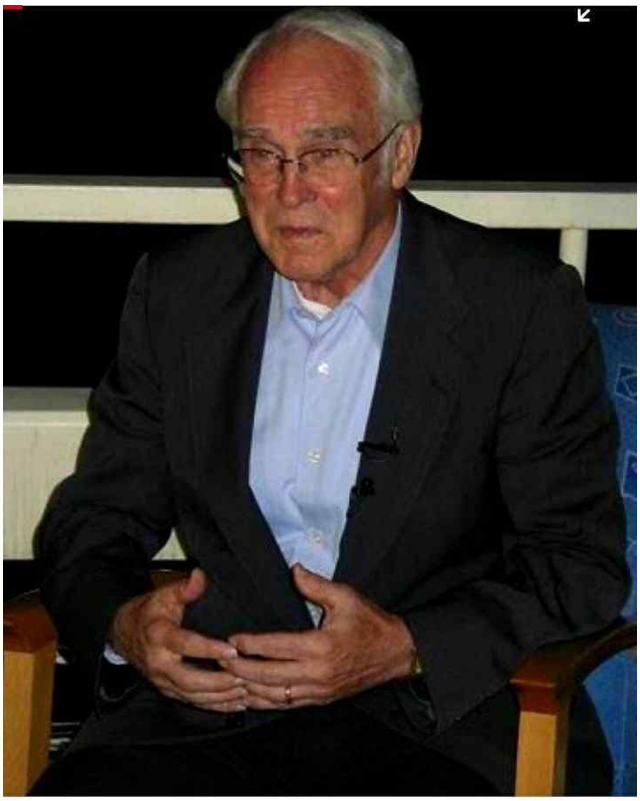
故 조지 오글 목사 (오영걸, Rev. George E. Ogle)

추 모 예 배



200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 초청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조지 오글 목사

1974년 12월 14일, 오글 목사가 강제 연행되던 날, 우홍선의 아내인 강순희 씨가 작은 금반지를 전달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인혁당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렸다. 여전히 그의 손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1시

장 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지하 이제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Korea Christian Democracy Foundation

49통일평화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사)긴급조치사람들 목민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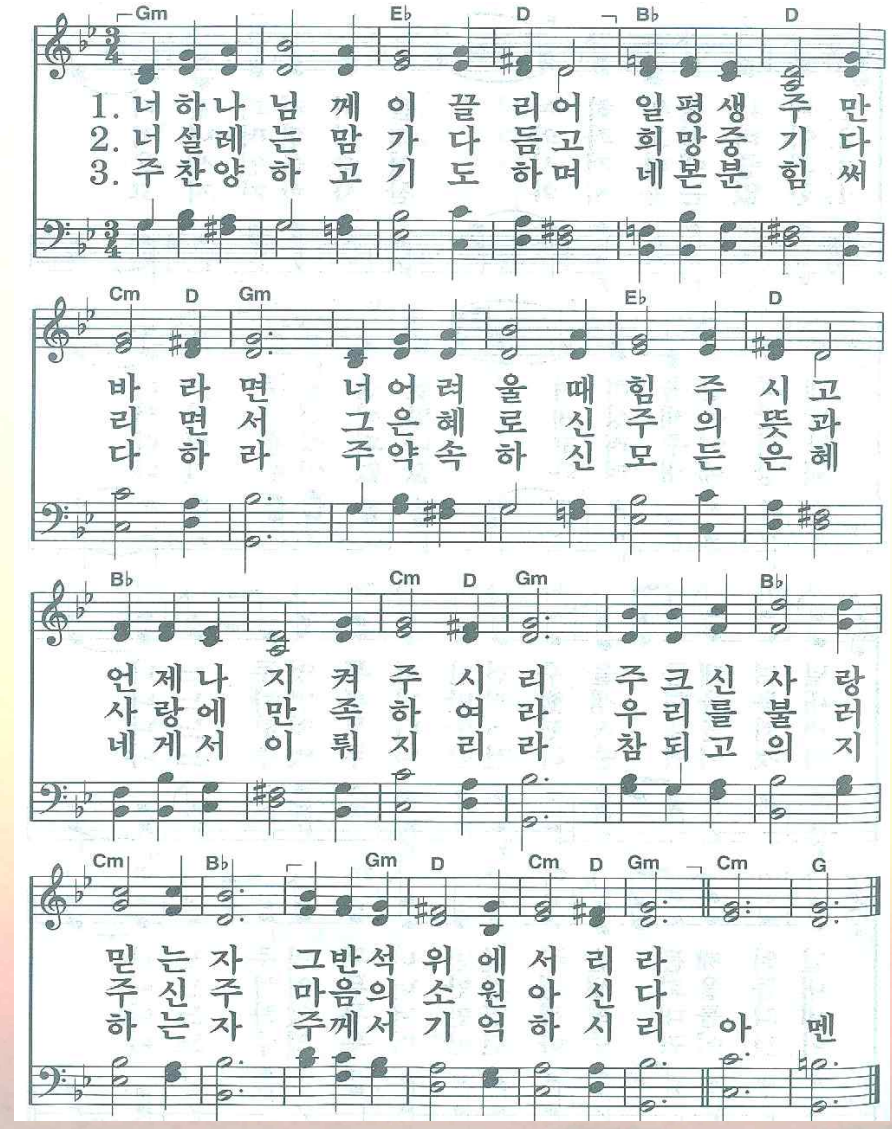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민청학련 동지회

사회: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예배로의 초대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공동번역)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추모기도 **유동우 선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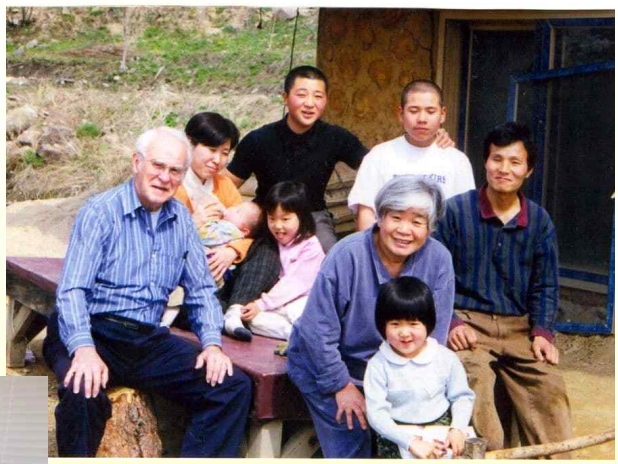
약력보고/ 추모영상

추모사

조화순 목사(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고문)
안재웅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유족인사 **Dorthy Ogle 여사/ 대독 신승민 국장**

축도



2018년 4월 1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정진우 목사, (사)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김영주 목사가 방미하여 투병 중인 오글 목사와 아내 도로시 오글 여사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로시 오글 여사의 서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시산업선교회, 민주화운동 동지와 인혁당 사건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준 모든 분들에게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께서 조지 오글 목사를 추모한다는 소식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이자 영광입니다. 61년간 목회자의 삶을 산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은 2004년부터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2020년 11월 15일 91세의 나이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마지막 18년 동안 아이들과 손주들 근처인 콜로라도에서 지냈습니다. 은퇴 후 책과 회고록을 쓰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독서하며 시간을 보냈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추모식을 열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46년 동안 한국에서 살지 않았고,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요양 시설에서 나갈 수도 없고 추모예배나 장례식을 위해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희생과 관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958년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3년간 감리교 단기 선교사로 지내며 그분은 한국교회와 함께 할 새로운 비전을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모이는 노동자들에게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며 시카고 도심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구 근처에 위치한 시카고 유아 복지를 담당하는 공중 보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사랑에 빠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서른 살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한 선교사들은 저녁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는 초대받은 시카고 한인 교회에 저를 데리고 갔고, 그는 교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연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지는 여전히 한국에 혼자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1959년에 결혼했고, 1960년 조지는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지는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네 아이는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중 세 아이는 인천에 있는 감리교 학교인 영화학원에 속한 샛별국민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1961년 인천에서 생활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지역 교회간 연결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공부, 가정 방문, 가족 축하 모임과 소풍을 함께 했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일하는 동안 조지는 도시와 농촌의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산업 선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조지는 2012년 우리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 12년뿐이지만, 나의 정체성과 마음은 한국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혁당 사건에서 목소리를 냈다가 추방당한 인물로 종종 회자됩니다. 내 인생의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한국 노동운동의 보전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한국 역사의 한 조각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주장이죠! 하지만 내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과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으며, 우리는 함께 노동권의 민주주의적 표본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우리는 1975년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날조된 기소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인혁당사건 가족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혁당사건은 32년 후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가족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고통이 보상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북한과 화해와 대화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통일 운동을 시작했을 때 NCCK와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1984년 미국친우봉사위원회(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일원으로 초대를 받아 북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저의 방북이 우리의 남한에 있는 친구들을 다치게 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때가 왔으니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한국 인권을 위한 북미연맹(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과 '미국교회협의회(NCCCUSA)'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교육과 옹호를 위한 입법 활동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NCCK에서 나온 자료를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988년 5월 저는 NCCK의 88선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문"을 의회 기록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 오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30년 전 한 현명한 한국 사람이 저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종식은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언제 어떻게 화해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미국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편은 나사렛 예수의 모범을 따르고,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 열 배의 연대를 여러분께 받고 있습니다. 이 추도식은 또 하나의 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어 한국교회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故 조지 오글 목사 약력

1929년 1월 17일	미국 펜실바니아 출생
1951년	Maryville College 졸업
1954년	Duke Divinity School 졸업,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 목사 안수
1954년	한국 첫 방문
1957년	시카고 수학 중 Westside Christian Parish의 도심상점교회에서 목회
1959년 5월 9일	Dorothy Lindman 결혼
1961년	한국/인천 선교사 파송됨 산업전도위원회/도시산업선교(UIM) 설립
1973년	위스콘신대학원 박사 학위 (국제산업관계 전공) 1
1973년	서울로 이주: 서울대학교 노사관계 전임강사,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노동조합 지도자 교육과정 강사 재직
1974년 10월 10일	인권과 민주주의 목요기도회 '인혁당사건 보고'
1974년 12월 14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함
1975년-1981년	에모리 대학교의 Candler School of Theology 목회학 교수, 「포로의 자유」 저술
1981년-1991년	미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국 사회/경제정의 총무 역임
1984년	한국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연설자로 초대됨
1990년	『한국 : 경제 기적의 반대』(Zed Press : 1990) 저술
1991년	일리노이교회 회의 공공정책부서인 Illinois IMPACT 이사 선임
1995년	북한방문, 국제 앰네스티와 러시아 방문(1996년)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초대됨
1999년	부산 민주공원 개원식 등 수년 동안 6차례 한국 방문
2002년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제5회 한국인권상 수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해외 민주인사 초청사업으로 방한 (마지막 방한)
2020년 6월 10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때,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국민포장 수상
2020년 11월 15일	콜로라도주 라파예트의 은퇴 커뮤니티에서 91세로 소천

〈주요 저서〉

『포로의 자유』, 『한국근로자의 실태와 교회의 과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20세기 한국의 이야기(How long, O Lord-Stories of Twentieth Century Korea)』 등